

국 어

출제자: 강세진 교수님

- 'HALF KANG 모의고사'는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효과가 큼니다. 따라서 해설지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강세진의 사전 허락 없이 본 문제를 복제·변형하여 판매 배포 전송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2025. Kangsejin all rights reserved.

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어의 대표적인 동화에는 비음화, 유음화가 있다.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ㄱ, ㄷ, ㅂ'이 뒤에 오는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 각각 비음인 'ㅇ, ㄴ, ㄹ'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ㄹ'이 비음 'ㅇ, ㄴ' 뒤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것도 비음화이다. 그리고 유음화는 비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 'ㄹ'로 발음되는 현상이다. 게다가 동화와 같이 교체가 일어날 때 앞 음절의 종성과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두 음운이 만나서 그중 하나가 바뀌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순행동화, 역행 동화가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는 경우이고, 후자는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는 경우이다.

- ① '밥물'은 조음 위치가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뀐 경우이다.
- ② '종로'는 조음 위치가 바뀌는 비음화가 적용되어,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뀐 경우이다.
- ③ '신라'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유음화가 적용되어,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뀐 경우이다.
- ④ '광한루'는 조음 방법이 바뀌는 유음화가 적용되어,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뀐 경우이다.

2.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말에는 한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음운 변동'이라고 하며 '교체, 탈락, 축약, 첨가' 모두 이에 속한다. 먼저,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알아보자. 음절의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ㅇ'뿐인데, 만약 이것 외의 자음이 음절의 끝에 오면 앞에 제시된 자음 중 하나로 발음하게 된다. 한편, 모음 탈락은 두 모음이 이어질 때 그중 한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같은 모양의 모음이 연속으로 등장해서 하나의 모음이 탈락할 때가 있고, 특정 환경에서 모음이 탈락할 때도 있다. 또한 거센소리되기는 'ㄱ, ㄷ, ㅂ, ㅅ'이 'ㅎ'과 합쳐져 거센소리인 'ㅋ, ㅌ, ㅍ, ㅊ'으로 발음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때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든다.

- ① '법학'은 '만형'과 달리 거센소리되기란 음운 변동을 겪은 후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어들었다.
- ② '(폭) 자라'의 '자라'는 같은 모양의 모음이 연속으로 등장해서 하나의 모음으로 축약한 예이다.
- ③ '섞는'의 '섞'은 음절 끝에 있는 쌍자음이 발음하기 어려우므로 'ㄱ'이 탈락하여 [석]으로 발음된다.
- ④ '창밖'은 '굽히지'와 달리 음절 끝에 있는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바꾸어 발음될 뿐, 음운의 개수가 달라지지 않는다.

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모음이란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아주 짧은 모음으로 'ㅣ'계 반모음과 'ㄴ/ㄷ'계 반모음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음운 현상으로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가 있다.

전자는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난다. 가령, 어간 '피-'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피어'가 [피여]로 소리 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피어]로도 발음할 수 있지만, 어미에 'ㅣ'계 반모음인 'ㅣ'가 첨가된 발음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되어, 쥐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어간이 'ㅣ, ㅁ, ㅂ'로 끝날 때 어미에 반모음 'ㅣ'가 첨가되어 발음되는데,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만 표기할 때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로 써야 한다.

한편 '반모음화'는 두 개의 단모음이 나란히 놓일 때 하나의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되는 음운 현상을 가리킨다. 가령, '피어'는 [피:]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단모음 'ㅣ'가 소리가 유사한 반모음 'ㅣ'로 교체된 것이다. 게다가 [피:]와 같이 반모음화가 일어난 경우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었다.

- ① '되어'에 반모음화가 일어나도 '되어'라고 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피어'를 [피:]로 발음할 때는 어간의 반모음이 단모음으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기어'를 [기어]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지만, [겨:]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이 아니다.
- ④ 두 개의 모음이 나란히 놓인 '뛰어'는 반모음이 첨가된 발음은 가능하지만,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발음은 불가능하다.

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사는 보통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며, 기능과 의미에 따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격 조사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처럼 일정한 자격을 가지게 해 주는 조사이다. 종류로는 주격, 서술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조사가 있다. 한편, 접속 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로 ‘와/과’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보조사는 특별한 의미를 덧붙여 주는 조사로, ‘은/는, 도, 만, 까지, 부터, 조차, 요’ 등이 있다. 보조사는 격 조사와 마찬가지로 체언에도 결합하지만, 여러 문장 성분 뒤에도 나타날 수 있다.

조사는 서로 겹쳐 쓸 수도 있는데, 이를 조사의 중첩이라 한다. 다만, 겹쳐 쓸 때 순서가 있으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먼저, 격 조사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관형격 조사는 서로 겹쳐 쓸 수 없다. 다만, 보조사와는 겹쳐 쓸 수 있는데, 대체로 보조사의 뒤에 쓴다. 부사격 조사는 예외로 부사격 조사끼리 겹쳐 쓸 수가 있고, 다른 격 조사나 보조사와도 겹쳐 쓸 수 있는데, 보통 다른 격 조사나 보조사의 앞에 쓴다. 한편 보조사는 보조사끼리 겹쳐 쓸 수 있고, 다른 격 조사와의 결합도 자유롭다. 다만, 의미가 모순되는 보조사끼리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 ① ‘그것을 먹은 사람이 당신만이 아니다.’에서 ‘당신만이’에 주격 조사인 ‘이’가 보조사 뒤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세진이는 오늘 밥만도 먹었다.’에서 ‘밥만도’가 어색한 이유는 의미가 모순되는 보조사끼리 결합했기 때문이다.
- ③ ‘나는 어머니와 닮았다’의 ‘와’와 ‘세진이는 밥과 반찬을 먹었다.’의 ‘과’는 품사는 조사로 같지만, 둘은 기능과 의미가 다르다.
- ④ ‘학교를 가다가 민지가를 만났다.’에서 ‘민지가를’이 어색한 이유는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를 서로 겹쳐 쓸 수 없기 때문이다.

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명사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로 나눌 수 있다. 자립 명사는 관형어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의존 명사는 관형어의 수식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의존 명사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다시 말해, 의존 명사는 특정한 형태의 관형어를 요구하는 선행어 제약이 있거나, 특정 서술어나 격 조사와만 결합하는 후행어 제약이 있다. 예를 들어, ‘여기 온 지가 오래되었다.’와 같이 ‘지’를 수식하는 관형어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과만 결합하므로 선행어가 제약된다. 그리고 ‘공부를 할 수가 없다.’의 ‘수’는 주격 조사 ‘가’와 결합하므로 후행어가 제약된다. 이와 달리 ‘것’은 결합할 수 있는 격 조사의 제약이 없이 두루 사용된다. 한편, 의존 명사 중에는 동일한 형태가 조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의 형태가 여러 개의 품사로 쓰이는 것을 품사 통용이라고 한다.

- ① ‘세진이는 호랑이를 산 채로 잡았다.’의 ‘채’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 외에 다른 관형사형 어미가 올 수 없으므로 선행어 제약이 있다.
- ② ‘그녀는 내 아내만큼 아름답지는 않다.’의 ‘만큼’과 ‘시간이 멈추기를 바랄 만큼 행복했다.’의 ‘만큼’의 품사는 각각 조사와 명사이다.
- ③ ‘그 일은 칭찬을 받을 만도 했다.’의 ‘만’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 ‘-(으)ㄴ’만 올 수 있으므로 선행어 제약이 있다.
- ④ ‘민수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의 ‘리’는 격 조사의 제약 없이 두루 결합할 수 있다.

6. ㉠~㉣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용언의 활용은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으로 나눌 수 있다. 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과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모습을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불규칙 활용은 용언이 활용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이유를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불규칙 활용에는 어간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어미가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 재산이 분는 재미에 힘든 줄을 모른다.
- ㉡ 옛말에 이르기를 부자는 망해도 삼 년은 간다고 했다.
- ㉢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우러러 경례하였다.
- ㉣ 동생은 아버지에게 어제 일로 칭찬은커녕 부엌에 꾸중만 들었다.

- ① ㉠에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 2개,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 1개가 있다.
- ② ㉡에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 2개, 규칙 용언이 2개가 있다.
- ③ ㉢에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 2개,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 1개가 있다.
- ④ ㉣에는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 1개,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 용언이 1개가 있다.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근이나 어간에 결합하여 특정한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형태소를 접사라고 한다. 접사는 일반적으로 어근이나 어간과 함께 나타나므로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접사는 기능에 따라 단어 파생에 기여하는 파생 접사와 활용할 때 어간에 결합하여 문법적인 기능을 표시하는 굴절 접사로 나누기도 한다. 이때 굴절 접사는 흔히 어미라고 하는데, 보통 접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파생 접사만을 의미한다. 파생 접사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내서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지만, 굴절 접사인 어미는 어간과 함께 결합한 형태인 기본형만이 표제어로 등재된다. 한편 파생 접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도 하고 바꾸지 않기도 한다. 전자와 같이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않으면 한정적 접사라고 하고, 어근의 품사를 바꾸면 지배적 접사라고도 한다.

- ① ‘흙투성이’는 ‘짓밟혔겠다’와 달리 파생 접사뿐만 아니라 굴절 접사도 결합해 있다.
- ② ‘들끓다’에 결합한 접사는 지배적 접사이고, ‘순이네’에 결합한 접사는 한정적 접사이다.
- ③ ‘(눈이) 감기다’는 ‘(따귀를) 갈기다’와 달리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를 활용하였다.
- ④ ‘땅을 깊게 폄다’와 ‘땅을 깊이 폄다’의 의미는 유사하지만, ‘깊게’와 ‘깊이’에 각각 결합한 접사의 종류는 다르다.

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어에 따라 완전한 문장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르다. 이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하며 종류로는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가 있다. 한 자리 서술어는 주어만을 필요로 하며, 두 자리 서술어는 주어 외에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 중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더 필요로 한다.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한편 문장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차이에 따라 그 자릿수를 달리하는 서술어도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① ‘물이 얼음이 되다’의 서술어는 ‘아이가 운다’의 서술어와 달리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② ‘아들이 아빠와 영화를 보았다.’와 ‘그 아이는 영리하게 생겼다.’는 모두 부사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 ③ ‘그는 통나무로 식탁을 만들었다.’는 주어와 목적어뿐만 아니라 필수적 부사어도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가 있다.
- ④ ‘나는 그녀를 천사로 생각한다.’와 ‘그녀는 첫사랑을 매우 생각한다.’는 서술어가 동일하지만, 의미의 차이에 따라 자릿수가 다르다.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 용언이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관형사만으로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의 제약이 많으므로 관형사형 전성 어미를 활용한 것이다. 이때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는 ‘-(으)ㄴ’, ‘-는’, ‘-(으)ㄹ’ 등이며, 이들이 용언의 어간에 붙으면 관형절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분류되는데,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의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으면 전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후자이다. 한편 동격 관형절은 관형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되는 관형절도 있고, 그렇지 않은 관형절도 있다.

- ① ‘민수가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그대로 유지된 관계 관형절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우유를 마신 아이가 마루에서 잠들었다.’에서 원래 문장의 종결 어미가 변형된 동격 관형절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민지는 철수가 조사한 자료를 보고서에 인용하였다.’에서 목적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그녀는 자동차가 전복된 기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에서 주어가 생략된 관계 관형절을 확인할 수 있다.

1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 국어의 시간 표현 중 하나는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는 것인데 품사에 따라 결합 여부가 달라진다. 동사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 ‘-는/ㄴ-’을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현하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어간에 선어말 어미가 결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표현할 수 있다. 과거 시제는 선어말 어미 ‘-았/었-’을 결합하여 표현하는데, 어간 ‘하-’ 다음에는 선어말 어미 ‘-였-’을 결합한다. 마지막으로 미래 시제는 선어말 어미 ‘-겠-’을 결합하는데,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모두에 결합한다. 이때의 ‘-겠-’은 미래 시제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추측이나 의지 등의 의미도 나타낸다. 한편, 회상의 의미가 있는 선어말 어미 ‘-더-’를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고, 추측의 의미가 있는 선어말 어미 ‘-리-’를 어간에 결합하여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도 있다.

- 우리 언제 ㉠만났더라?
- 귀로는 음악을 ㉡듣는다.
- 어제 내게 다가온 것은 ㉢사자였다.
- 나는 시인이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 날씨가 이렇게 가무니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 ① ㉠과 ㉦ 모두 선어말 어미 ‘-았/었-’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였다.
- ② ㉡와 ㉤ 모두 선어말 어미 ‘-였-’을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표현하였다.
- ③ ㉠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여 과거 시제를 나타내었고, ㉡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여 미래 시제를 나타내었다.
- ④ ㉢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여 현재 시제를 나타내었고, ㉤은 선어말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었다.

11.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어에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데, 이때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닌다. 먼저,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고,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게다가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하고,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며,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 들 수 없다.

- ① ‘차를 끓이다.’의 접미사 ‘-이-’ 뒤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 들 수 있다.
- ② ‘시간을 비워 두었다.’의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많이 빈다.’의 ‘빈다’의 어간과 동일하다.
- ③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의 접미사 ‘-리-’는 동사에 결합하여 품사를 바꾸고 사동의 의미를 더하였다.
- ④ ‘나는 모형 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의 접미사 ‘-리-’는 형용사의 어근에 결합하여 피동의 의미를 더하였다.

Copyright 2025.

Kangsejin all rights reserved.